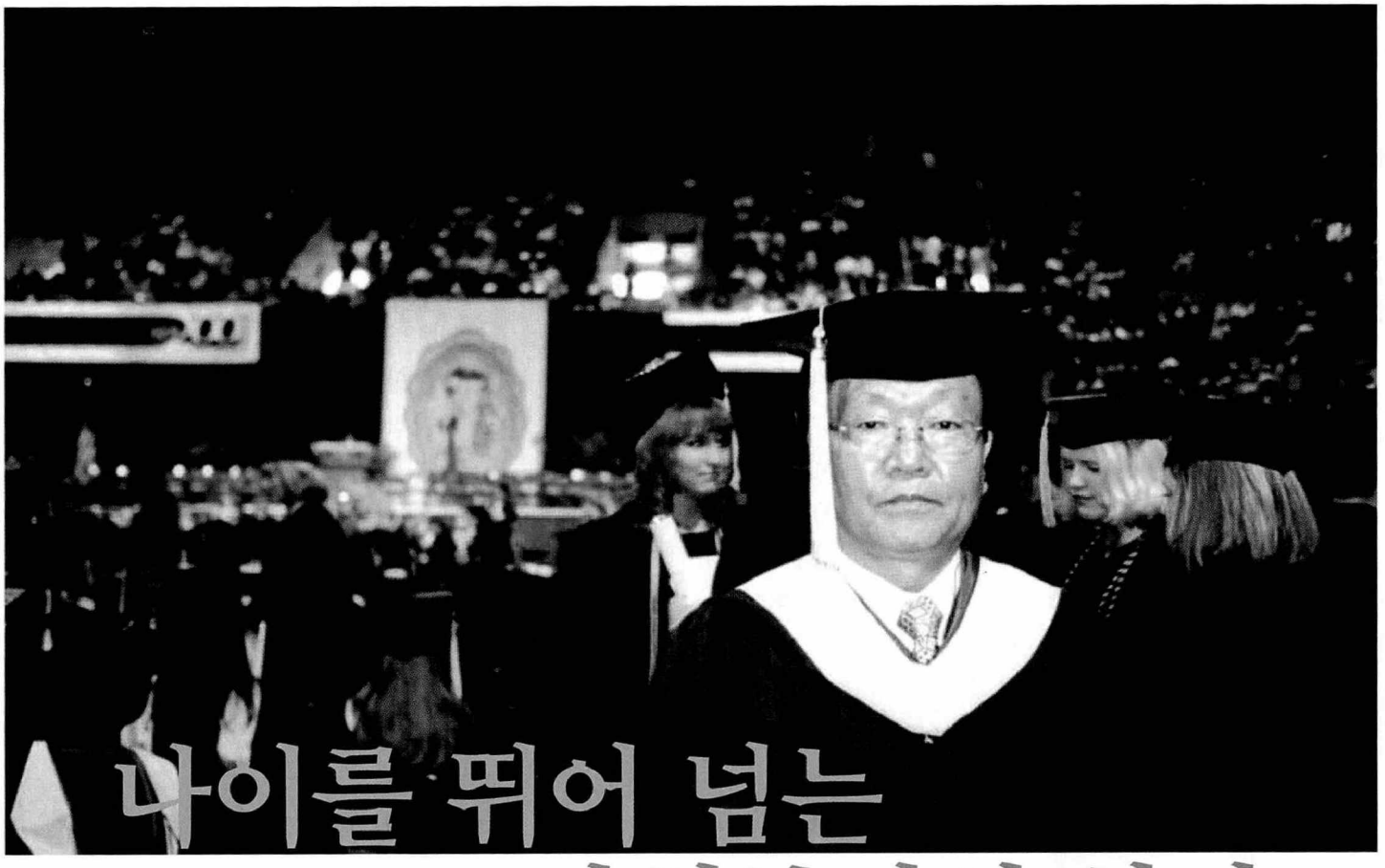

나이를 뛰어 넘는 사회복지의 열정

은퇴 후 미국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한 **조인남** 사회복지사

한 노(老) 학생이 오는 12월 18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졸업식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주인공은 1966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30여 년 동안 하다가 60세에 은퇴한 후 미국대학 박사과정에 도전해 이를 성취한 조인남(趙仁男, 65세)씨이다. 이번 12월호 'Social Worker' 에서는 노년의 삶을 사회복지사로 보내며, 사회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조씨를 만나보았다.

오는 12월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은퇴하신 후 사회복지학을 다시 전공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하나인 은퇴를 하게 되면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노인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사회복지학을 다시 전공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셨는데 어려운 박사과정까지 가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노인복지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미국에서 노인복지학을 학문적으로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었다.

박사학위를 끝까지 마치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박사과정 입학을 위해 치러야 할 TOEFL과 GRE시험 준비

가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시간에 아들, 딸 뻘 정도되는 외국학생들과 함께 격의 없이 열띤 토론을 하며 지내던 때와 2005년에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부(NASW South Carolina Chapter)에서 '올해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International Student of the Year 2005)' 로 선정되었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

USC에서 공부하셨는데 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는 미국 동남부 지역인 South Carolina주의 수도 Columbia시에 소재하고 있는 205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주립 대학교(1801년 설립)로써 현재 전체 학생수는 약 39,000명이 된다.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선생님만의 공부 비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다는 표현은 과찬이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 학생이 미국 학생과 함께 공부하려면 그들 보다 몇 배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따로 비결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3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은퇴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금융기관에서 30여 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직 후 잠시 무역업을 하기도 했다

은퇴 전에 하시던 업무와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달라지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은퇴 전에 하던 금융업무나 무역업은 궁극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항상 직장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부터는 사회에 대한 봉사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와 미국의 사회복지를 비교하신다면?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인복지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의료보험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박사학위 취득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 미국 Midwest University에서 강의하면서 노인복지실천 분야에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일을 할 계획이다.

늦은 나이에 다시 사회복지를 공부하려는 후배들 또는 진로를 바꾸어 사회복지를 공부하려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찾아 노력하면 누구나 보람있는 제2의 인생을 시작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당부 혹은 제언의 말씀부탁드립니다.

미국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낮은 상태로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낮은 처우 속에서 힘들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복지사도 미국 사회복지사와 같이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

양력
1941 _ 서울 출생
1968~1996 _ 한국외환은행 근무
1997~1998 _ 한외종금(주) 부사장
1999~2000 _ 파이오텍(주) 사장
1966 _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1995 _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8 _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2001 _ 사우스캐롤라이나대 한국 프로그램 사회복지학 석사
2003 _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